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819호 현대불교
2011년 1월 19일(음 12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진짜로 자부처를 믿고 열심히 마음을 밝혀야 합니다

그림 · 최주현

여러분! 오늘 대구지원에서 여러 귀빈들과 신도님들을 모시고 다 같이 한마음으로 호국 영령들을 위한 추모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탁만 쳤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 제각기 마음의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자체를 가만히 살펴본다면, 삼천 년 전 부처님께서 미리미리 진리에 관한 건을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50% 물질계에만 정신이 팔려서 허덕거릴 뿐이지 정신계와 물질계가 합류화해서 돌아간다는 자체를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만 보여 주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고 자식이 부모를 잃고…. 저도 6 · 25 때 똑똑히 보았습니다. 시체가 장작개비 내뜨린 거와 같이 무더기 무더기 진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피가 한없이 흘러내리는 걸 봤습니다. 강을 못 건너오고 모래밭에서 허덕이다가 총을 맞아서 픽픽 쓰러지는 걸 보기도 하고 수없이 쓰러진 시체들을 보기도 하고 총알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뛰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근본이 몸을 형성시켜서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정신차려서 생활을 해 나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려운 지경이 많이 닥치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말입니다. 영령들을 위하여 이렇게 추모식을 한 것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알아 두어야 할 두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나를, 참나를 탄생시켜서 상봉하는 겁니다. 현재의 나가 과거에 살던 참나를 발견해서 상봉을 한다면 자유자재권을 얻어서 12대 종손을 건진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체 만물만생들에게 다 응신으로서 나투면서 어느 것 하나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또는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는 그런 모든 진리에 관한 섭류를 터득해서 바로 자유권을 갖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가 살다가 죽는다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살게 되고 현실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과거도 현실이고 미래도 현실이니 오늘, 영원한 오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라는 마음이 있고 자식이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전기가 가설돼 있듯이 마음의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나 자식을 위한다면, 내 육신 안에 생명들이 잔뜩 들어서 더불어 같이 살고 있으니 그대로 공했다는 사실을 알고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남을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서 나를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일 년에 한 번씩이라도 촛불재를 하면서, 또 마음으로 항상 불을 밝히면서 생활 속에서 닥치는 일체를 재료로 삼고 행주좌와로써 참선을 하실 수 있다면 더불어 밝아지는 겁니다. 지금은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가 부처님 법이요, 우리들 법이 부처님 법이요, 부처님 법이 우리 법이요, 우리네들 육신이 부처님의 형상이요,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대무변하고 묘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양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밝히면 둘 아니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밝혀야만 되는가. 자기가 나온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안의 섭류를, 정신계를 도저히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육신이 태어났으면 정신이 다시 태어나야 진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나가서 어떠한 문제를 저지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별의별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불을 밝히고 마음공부를 하신다면, 생활을 재료로 삼아서 항상 하실 수 있다면 바로 아래 자손들은 마음이 화해서 바뀌지고, 바뀌지면서 화하게 됩니다. 그 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의식들이, 업식으로 남은 의식들이 다 착해지고 밝아지고 보살로 화해서, 말로 하거나 욕하고 때리지 않아도 스스로 밝아짐으로써 일이 풀리고 돌아가신 부모의 영령들도 밝아져서 스스로 천도가 되죠. 자기와 더불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광대합니까.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도 연구 재료죠. 우리가 꼭 연구를 한다 하고 연구를 해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마음을 정돈하고 계발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생활과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내 마음 한생각에 모두 자유로이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에 사는 양반들이 살아나가면서 물질적인 문제 50%만 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고 무상게 외우는 데서도 나왔지만, 죽으면 모든 게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고 뭐가 남느냐 하면요, 지수화풍의 원소가 남는단 말입니다. 그 원소가 남음으로써 바로 불의 원소는 생명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바람과 물과 흙은 바로 살아나간 그것을 입력하는 데에 모든 역할을 하는, 내가 지금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기구가 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합해서 영혼과 근본과 둘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정신계의 발전을 시키면 그 영혼과 근본이 둘이 아니게 다르지 않지만 마음의 공부를, 정신계의 공부를 안 하면 선장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듯이, 즉 말하자면 근본 따로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따로 있고 그렇게 되죠. 육신 따로 있고요.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 하나가 전체 지수화풍이며 지수화풍을 먹고 살며 지수화풍의 근본 자체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불성! '불'은 생명의 근본인 총장, 이름을 붙이자면 총장이 됩니다. 다음에 중장이 있고 그 다음에 소장이 있듯이, 대뇌에도 그렇게 총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중장이 있고 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바른쪽이 있지만 그 바른쪽 왼쪽을 같이 봉을 해서 입력이 되는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하리만큼 되었는데 지수화풍, 즉 바람과 물과 흙이 화해서 모두 입력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들이고 내게 하는 심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이것을 연구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외국에도 많이 있더군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지수화풍이 그렇게 되느냐. 지수화풍이 없다면 우리 몸도 없고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